

# 교육부-교육청 '누리 예산' 편지 공방

### 광주교육청 '예산 미편성' 통신문에 교육부는 '지원' 서한 책임 떠넘기며 혼란 가중... "지원금 줄어줄까" 학부모 불안

장관-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에 대해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상황의 어려움 등을 들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교육감 - 정부는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겼습니다.

관에 공동으로 보낸 편지는 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으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며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지원을 약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도 교육청 행위를 무책임하다며 비판하는 의도도 행간에 읽힌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장위국 광주시교육감이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낸 점을 들어 '반박성' 편지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전해진다.

황 부총리 등은 공동 서한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 지출경비로 명확히 했음에도 14개 시도 교육청이 재정의 어려움 등을 들어 예산 편성을 안하고 있다"고 썼다. "어린이집

에 다니는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달리 차별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도 했다.

앞서, 장 교육감이 보낸 가정통신문 내용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장 교육감의 편지는 10개 단설유치원과 318개 광주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부모들에게 보내졌다. 편지에는 "별도 재정지원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70억원을 광주 시교육청이 떠안게 되면 광주 학생들의 교육비가 1인당 매년 33만원씩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성 메시지도 담았다.

결국 정부와 교육감이 보낸 편지를 놓고 보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다. "양측이 편지 공방"을 하면서 괜한 혼란만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소리가 들려온다.

광주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부터 아이들 학습준비물이나 체

험학습경기 지원이 없어지거나 줄게 된다"고 쓴 장 교육감의 편지 내용만 놓고 보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불안할만하다.

정부가 "앞으로 관계 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이 반드시 이뤄짐으로써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양측의 '편지 공방'이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 서한문은 교육부와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한편 전국 시도 지자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각 가정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대구, 울산, 경북을 제외한 광주·전남 등 14곳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7    해질 17:58  
해짐 17:22    달짐 07:08

누굴 만날까

눈과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C)

광주	2/4	보성	구름맑음	1/3
목포	2/4	순천	구름맑음	2/5
여수	3/5	영광	구름맑음	1/3
나주	2/4	진도	구름맑음	3/4
완도	3/4	진주	구름맑음	2/3
구례	1/4	군산	구름맑음	2/3
강진	2/4	남원	구름맑음	2/3
해남	2/4	속산도	구름맑음	3/5
장성	1/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2.0~4.0
	면바다	북서~북	2.0~4.0	북서~북	3.0~6.0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1.5~2.5
	면바다(동)	북서~북	2.0~3.0	북서~북	3.0~4.0
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3.0~5.0

◇생활지수

- 식중독: 관심
- 자외선: 낮음
- 체감온도: 관심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1:48	07:10
	14:30	19:45
여수	밀물	썰물
	09:15	02:42
	21:24	15:15

◇주간 날씨

27(금)	28(토)	29(일)	30(월)	12/1(화)	2(수)	3(목)
☁	☀	☀	☀	☀	☁	☀
0/6	1/8	3/10	3/10	2/11	2/10	2/8

## 광천동 재개발 비대위 조합 인가 무효 소송

광주 광천동 재개발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구청을 상대로 한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비대위는 조합 설립인가 승인 과정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가 주민(조합원) 동의서 200여장을 허위 작성해 구청에 제출함으로써 조합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 요건(조합원 75% 동의)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또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를 막기 위해 조합간 조합인가 처분 집행정지 가져분도 신청하기로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자체 파악한 동일 조합원 명의로 중복 제출된 동의서,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 작성해 제출된 동의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동의서를 제외할 경우 현재 조합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허가 조합"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설립인가 무효를 주도하는 인사는 조합장 선거에서 탈락한 이후 사사건건 추진위를 음해하는 인물로 현재 꾸러진 조합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반박했다.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전체 2346명의 조합원 중 1773명(75%) 이상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추진위는 이 중 조합원 1775명에게 동의서를 받아 서구청에 제출했으며 구청은 지난 9월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초·중 학생들 "과학아 놀자"

광주 송의중학교(교장 김해숙) 과학동아리 '빅뱅' 회원들이 25일 광주시 남구 월성동 무학초등학교를 찾아 초등학생들에게 전기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학숙-광주 운행 버스 달랑 한대뿐

중편 요구 수년째 외면

전남에서 광주로 유학 온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 전남학숙과 광주시를 오가는 시내버스가 1대에 불과해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5일 전남학숙에 따르면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전남학숙과 광주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전월 177번 단 1대다. 전월

177번은 전남학숙-광주대-백운동-양동 시장을 운행하는데 배차간격이 50~55분으로 1시간에 가깝다.

전남학숙을 거쳐 가는 화순 군내버스 2대가 있긴 하지만, 1대(318번)는 광주대-광천동 버스터미널을 1~2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어 학생들의 이용률이 낮다.

또 다른 군내버스 한대(200번)는 화순

군청을 거쳐 광주시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전남학숙 학생들은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수년 동안 학교 측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을 요구했으나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전남 오늘 첫눈 온다

내일까지 최고 8cm

은 1~5cm다.

25일 지리산 노고단에 올 겨울 첫눈이 내렸다. 광주 시민들은 26일 첫눈을 만날 수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6일 광주·전남지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비 또는 눈이 오고, 오후부터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27일까지 내린 뒤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적설량은 전남 서해안 3~8cm, 광주와 전남 내륙

는 1~5cm다. 눈과 함께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6일 광주와 목포는 영상 2~4도, 담양과 보성은 영상 1~3도의 기온 분포를 보여준다.

기상청은 "전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구례군에 자리한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과 성삼재에는 3.5cm의 첫눈이 쌓였고, 이날 무등산국립공원 정상에서도 눈발이 산발적으로 날렸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오늘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다음달 26일까지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한해 장애인 전용 주차할 수 있다.

점검대상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대형할인점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을 포함해 전국의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4300여곳이다. 점검항목은 주차 가능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반 조 및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정사용과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허니문빌딩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진주시 서산동

의사, 변호사, 의사, 변호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타일러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무술산 여성' 희망 33~67세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6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무자녀 남성' 희망 35~64세

28~48세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